

# “가성비 甲 다마스·라보 소상공인에 꼭 필요”

# 대출과 無知

## 인터뷰

### 다마스·라보 판매왕 송병기 이사

퀵·배달대행 운송업체에서 인기 자영업 옵션 맞춰 새롭게 제작도 2월 가격할인·무이자할부 혜택



19일 서울 종로의 웨보레 대리점에서 만난 송병기 이사가 다마스와 라보와의 남다른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국내 유일 경사용차인 다마스·라보가 퀵·배달대행 운송업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한 직원들이 있었다. 바로 다마스·라보 판매왕으로 이름을 올린 송병기 이사가 그 중 한명이다.

지난 19일 한국지엠 웨보레 종로대리점에서 만난 송 이사는 생계형 화물 운송업 자영업자들의 해결사 역할을 맡아 분주한 모습이었다.

#### ◆2009년 다마스·라보 첫 만남

송 이사는 2009년 44세의 나이로 늦깎이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당시에는 한국지엠이 아닌 대우자판 시절이다. 회사에 입사해 교육을 받고 처음 판매한 차가 다마스였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다마스·라보와 운명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내 유일의 경사용차인 다마스·라보의 인연으로 다양한 판매왕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일을 시작하지 1년 만인 2010년 지엠대우 리테일러 판매 1위, 2011년 웨보레 최우수 판매왕, 2012년, 2013년에도 판매왕 타이틀을 이어갔다.

그는 “다마스·라보는 국내 유일의 경사용차라는 점과 취급특성 등 다양한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료 역시 저렴한 LPG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며 “특

히 주행거리가 많은 화물 운송업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차량 가격도 저렴한 것이 주요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경사용차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면 굳이 송 이사가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차량 계약부터 고객이 요구한 옵션에 맞춰 새롭게 제작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차량을 판매를 통해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꾸준히 연락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

#### ◆단종 위기서 생산 연장

한국의 최장수 모델인 다마스·라보는 누적 대수 판매량이 지난해 말 기준 37만 4657대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

러나 지난 2013년 강화된 안전 및 환경 기술을 부합하지 못하며 단종 위기까지 겪었지만 전국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직접 나서 규제 유예를 청원한 덕에 안전 및 환경 규제 적용을 유예 받고 다시 판매가 재개된 바 있다.

송 이사는 “단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영업자들이 먼저 차량 생산을 더해주면 안되냐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며 “2~3년 정도면 벌써 30만km를 넘게 주행하기 때문에 교체주기도 빨라 생계형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에게는 1000만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마스·라보는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이 꼽힌다. 다마스 밴모델의 경우 450kg, 라보는 55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20kg 쌀 포대를 기준으로 각각 22개, 27개를 실을 수 있는 적재 용량이다.

이같은 장점과 소상공인들의 수요 증가 등으로 다마스·라보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면서 2021년까지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 같다”며 “소상공인들이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된 차임에도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OBD(배기가스자 진단장치)단자 등 안전사항을 추가해 생산해준 한국지엠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은 2월 한 달간 다마스·라보 구입 고객에게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 주 고객층인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초기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만원의 행복’ 할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기지수첩

나 유리 (파이낸스&마케팅부)

우리는 쉬움과 어려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쉽다’라는 사전적 의미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다’처럼 쉽고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물(처리과정)이 있나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듯 하다. 마치 ‘35+5’라는 계산식이 ‘35+50’보다 계산과정을 덜 거쳐 쉬운 것 처럼 말이다.

청년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평범하던 그들이 빚더미에 오른 이유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다. 쉽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주변 ATM에 넣어 카드론(단기소액대출)을 하거나, TV·인터넷으로 쉽게 접했던 대부업체 대출을 신용조회 한번만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들은 대다수 예·적금을 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회에 나오기 전 그들은 은행을 예·적금을 하는 곳이지 대출하는 곳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저축은행-대부업-사금융 순으로 높아지는지도,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이

용했을 때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단지 돈을 얻는데 방해물(대출가능기준 등)이 있나 없냐만 판단해 쉬운 길을 택할 뿐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10%대 대출을 제공하고, 빚더미에 오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것이다. 특화된 대출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 유통 기회를 늘리고, 채무조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끔 해주겠다는 거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 원인과 결과, 현상과 당위를 혼동해선 안 된다. 저신용 저소득자들이 증가하고 빚더미에 오른 채무자가 많아진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원방안을 두고 모른 것을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무지의 정의는 ‘의심하지 않기’다. 쉬운 대출상품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지일 뿐이다. 사회에 나오기 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에는 그에 맞는 높은 금리와 신용점수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교육이 필요할 때다. 쉬운 길은 왜 쉽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줘야 한다.

/yu115@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 48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60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는 날. 72년생 붉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84년생 발진이 느려 답답 하지만 오늘은 현상유지가 답이다.
- 49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고 찾아보는 것이 좋다. 7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굳은 의지와 절제가 필요. 85년생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
- 5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 62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자식에게 기쁜 일이 있다. 74년생 마음은 상하고 몸은 힘드니 재물은 들어온다. 86년생 하수구가 막혔다면 내 건강도 체크할 것.
- 51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 63년생 지인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75년생 귀인을 만나면 단기투자는 관철다. 87년생 갑자기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먼저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 52년생** 새는 날아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64년생 위기를 겪으면 내 편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다. 76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하자. 88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 53년생** 운이 쇠퇴하는 시기이니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말자. 65년생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77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89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결혼은 계약 관계가 될 뻔.

- 54년생**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66년생 바다 건너 귀인이 찾아오니 즐거운 하루. 78년생 초지일관 열정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 90년생 상대는 내 연인 전에 상대방의 자식임을 인식해보라.
- 55년생** 도움을 준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동분 서주 바쁘지만 하고 성과는 적다. 79년생 아무리 억울해도 따지거나 언쟁하지 마라. 91년생 남이 칭찬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 56년생** 베풀 능력에 있을 때 최대한 베풀어라. 68년생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루. 80년생 노력한 만큼 소득도 따라주니 행복. 92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 57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리고 오는 격. 6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81년생 까마귀 꿈은 행운을 가져온다. 93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좋은 날.
- 58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70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일을 잘 풀리게 한다. 82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9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 59년생** 형제 원망 말고 나무부터 온고지신(溫故知新)하라. 71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83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된다. 95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 김상회의四季 풍경소리의 갤러리

마음에 두어왔던 실천목록들 중 하나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서울 서대문 종근당 뒤편 오목한 집터에 자리를 잡은 지 십수년 만에 월광사 풍경소리가 새롭게 작은 등지를 틀게 되었다. 아주 작지만 다시 터를 갖게 되는 작은 회향으로 ‘풍경소리 갤러리’를 시작하려는 것이다. 강의나 그림뿐 아니라 때로는 밥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커피는 재료비에 준하는 값은 받을 테지만 말 그대로 실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용되는 쌀은 품질 좋은 일반미일 것이며 제공되는 반찬의 식재료는 소박한 식자재로 할 예정이다. 당초 생각은 점심시간 무료급식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정작 필자가 고마움을 나누고 싶은 서민 식당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신도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 일리가 있기에 밥의 정성을 나누는 것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대신 직장인들의 지친 심신을 힐 수 있는 작은 갤러리 개념으로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보려 한다. 지역사회까지는 아닐지라도 사무실 ‘풍경소리’와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작은 회향을 해야 할 때며 그 회향의 방법은 무엇보다 먹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된 것이다. 이는 필자의 부모님께서 매일 매일 실천하셨던 일들이었다. 때가 아니어도 누가 집에 찾아오면 반드시 식사를 챙겨야 한다고, 물론 아버지 생전 당시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적잖았던 시절이기도 했던지라 아버지는 항상 사람들이 배 든든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식사는 하셨습니까?”가 인사였을 정도니 말이다. 지금은 끼니를 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보통 수준의 한 끼 식사 값이 칠팔천 원은 되는 세상이다. 쌀이 좋으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훌륭한 요기가 된다. 때가 되면 기름이 잘 잘 흐르는 좋은 쌀로 지은 밥 한 그릇에 그리고 배추로 만든 김치와 찬 한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회향의 의미를 담은 한 끼 식사 그윽한 차와 커피와 이야기가 있는 곳 월광사 풍경소리가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7	8				
		3		6			1	
4	5			1	9	7		
	7	2			3	5		
8			9					
	4	9	5			7	8	
					9			2
		1	3			6	5	

	4			7				9
		5		4	8		1	
		1						
4	3		1	9			5	8
		8			2		4	
		7			5			
1			5	6		3	2	
	6				1			4
7	9			4				

스도쿠 정답								
6	5	9	7	2	8	1	4	3
2	7	1	6	8	9	5	3	4
8	3	2	4	5	6	7	9	1
2	8	9	5	6	7	1	8	3
8	9	5	6	1	2	7	3	4
1	6	7	8	2	3	9	5	1
9	2	6	1	8	3	4	5	7
7	1	2	5	9	8	6	3	4
5	8	2	6	7	9	2	1	3
5	9	1	7	8	6	2	3	4
7	6	8	1	2	3	4	5	9
2	8	9	6	5	7	8	1	3
9	8	2	5	8	7	1	6	3
1	7	6	2	3	4	5	9	8
8	5	2	9	6	1	2	3	7
2	7	8	5	9	1	6	8	3
8	1	9	8	7	6	5	2	3
6	8	5	2	1	3	9	7	4

문제 제공=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49호